

개도국 지역이슈 리포트

【지역이슈분석 2011-7】

2011. 8. 31.

신생국 남수단의 독립 과정과 과제

목 차

| | |
|------------------------------|---|
| I. 남수단의 독립 과정 | 1 |
| II. 남수단 독립의 정치, 경제적 영향 | 4 |
| III. 남수단의 주요 과제 | 8 |



■ 1956년에 독립한 수단은 북부와 남부 지역 간에 인종, 종교 등의 차이와 경제적 격차를 둘러싸고 오랜 내전과 갈등을 겪어오다 국민투표를 거쳐 2011년 7월 9일에 남수단공화국(Republic of South Sudan)이 분리·독립하였음. 이하에서는 남수단의 독립 과정과 독립 후의 정치, 경제, 사회적 과제 등을 정리하고자 함.

I. 남수단의 독립 과정

□ 수단공화국이 독립 55년 만에 북수단, 남수단으로 분리

- 영국과 이집트의 오랜 공동통치에서 벗어나 1956년에 독립하여 수단공화국(Republic of the Sudan)이 출범하였으나, 독립 이후에도 북부와 남부의 주민 간에 인종·종교적 차이 등으로 끊임없는 갈등을 겪다가 2011년 1월에 남북의 분리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를 거쳐 독립 55년 만에 북수단, 남수단으로 분리되었음¹⁾
 - 그동안 북부와 남부 주민의 오랜 갈등은 무력 충돌로까지 이어져 약 40년에 걸친 2차례의 내전(1차: 1955~72년, 2차: 1983~2005년)이 발생하였고, 2005년 1월에 체결한 평화협정(Comprehensive Peace Agreement)을 계기로 제2차 내전이 종식되고 남수단 자치정부(Government of Southern Sudan)가 출범하여 독립국가 건설을 추진하였음
 - 2011년 1월의 국민투표 결과, 남수단 투표자의 98.8%가 남북 분리에 찬성하여 남수단공화국(The Republic of South Sudan)이 2011. 7. 9에 주권국으로 정식 출범하였음
- 남수단공화국은 아프리카의 54번째 국가로 탄생하였고 2011. 7. 14에 UN의 193번째 회원국이 되었음

1) 수단 공화국은 남수단공화국이 분리 독립한 이후에도 예전과 동일한 국호를 사용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북수단으로 표기하고자 함.



□ 북부, 남부 수단의 극심한 갈등은 인종, 종교, 언어적 차이 등에 기인

- 북부 지방은 주민이 아랍계 무슬림이 많고 아랍어를 사용하며 역사적으로는 이집트와 밀접한 반면, 남부는 아프리카 본토 흑인이 많고 영어를 사용하며 기독교, 토착신앙을 믿고 케냐, 우간다 등 인접국과 친밀함
- 남수단 독립 이전의 인종 구성은 아랍계(40%), 딩카(Dinka, 12%), 베자(Beja, 7%)의 순이었고, 이슬람교가 국교임에도 불구하고 무슬림은 총인구의 약 60%에 불과하였음
- 지형적으로는 북부가 사막인 데 비해, 남부는 숲과 늪지대가 많음
- 식민지 종주국이었던 영국은 지배 초기에 북부와 남부를 분리하여 통치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통합하여 통치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음
- 인종 구성의 다양성, 기존 종교 등을 고려하여 북부 지방에는 무슬림 문화를 존중한 반면, 남부 지방에는 기독교와 영어를 전파하였음.
- 독립 이후에는 북부 아랍계 무슬림이 중심이 된 정부가 출범하여 개발수익을 독점한 반면, 남부 주민을 사실상 차별하면서 이슬람 샤리아(Shariah)법을 강제로 적용하는 등 이슬람화를 추진하자, 남부 주민이 반발하여 분리를 요구하며 폭동을 일으켜 2차례 내전으로 이어지는 등 분쟁이 계속되었음

□ 2차례의 내전과 다르푸르(Darfur) 사태

- 제1차 내전(1955~72년)은 북부 무슬림의 지배체제 강화에 대한 남부의 불만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음
- 영국이 1946년에 북부, 남부 수단을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아랍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면서 남부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고 남부 주민을 권력층에서 배제하였음
- 이에 남부 주민의 불만이 누적되던 중 영국이 연방제 실시에 대한 약속도 폐기하자 남부 에카트리아 지방을 중심으로 반군이 결성되었음
- 17년 간의 제1차 내전은 1972년에 남부 수단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아디스아바바 평화협정(Addis Ababa peace agreement)이 조인되어 종료되었음



- 제2차 내전(1983~2005년)은 중앙 정부가 전국적인 이슬람 국가화를 강제로 추진하는데 대해 남부 수단이 반발하여 무력으로 대항한 과정임
 - 1983년 4월 니메이리(Jaafar al-Nimeiri) 정권이 계엄령을 선포하고 수단의 이슬람화를 추진하면서 강제로 샤리아법을 도입하고 남부 수단을 3개 지역으로 분할하자 남부 주민들은 존 가랑(John Garang)²⁾을 중심으로 수단인민해방군(Sudan People's Liberation Army)을 조직하고 중앙 정부에 대항하기 시작하였음
 - 내전의 또다른 원인은 북부 지방이 남부 천연자원의 개발 이익을 착취하려는 것에 대한 우려임. 1978년에 발견된 남부 벤티우(Bentiu) 근처의 유전 개발 및 운하(Jonglei Canal) 건설과 관련된 개발이익을 북부가 독점하려는 움직임에 남부 주민이 대항하였음.
 - 22년에 걸친 오랜 내전으로 200만 명 이상의 사망자, 40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한 후 2005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전쟁이 종식되고 남수단에 자치정부가 수립되었으며 2011년에 남수단의 독립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되었음
- 다르푸르 분쟁은 2003년 2월부터 수단의 서부 다르푸르에서 아프리카계 흑인과 아랍계 민병대 잔자위드³⁾(Janjaweed)간에 발생한 무력분쟁을 일컬으며 금세기 최악의 인종학살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음
 - 다르푸르는 면적이 한반도의 2배가 넘는 광활한 지역으로서 농경사회를 구성한 아프리카계 흑인과 유목민인 아랍계 주민이 함께 거주하는 곳이었음. 이들이 물과 토지를 둘러싸고 대립하여 오던 중에 가뭄, 사막화, 인구 증가로 인하여 아랍계 주민들이 물을 찾아 가축을 남쪽으로 이동시키면서 충돌하게 되었음
 - 수단해방군(Sudan Liberation Army: SLA), 정의평등운동(Justice and Equality Movement: JEM) 등 반군 조직이 군 초소를 습격하자 중앙정부가 아랍계 민병대를 동원하였는데, 전투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자(유엔은 사망자 30만 명, 270만 명의 난민 발생 추정)가 발생하고 민간인 학살, 부녀자 강간 등 반인륜적 범죄가 속출하였음
 - 제2차 내전이 북부 무슬림과 남부 기독교·토속신앙 신봉자의 대립이었던 것과는 달리 다르푸르 분쟁의 당사자와 희생자는 대부분 무슬림이었음.

2) 당시 대령이었던 존 가랑은 남수단 독립전쟁의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으며 남수단의 독립기념식이 열린 장소도 수도 주바(Juba)의 '존 가랑 기념관'이었음
 3) 말을 탄 악마(devil on horseback)라는 뜻으로 아랍계 이슬람 민병대를 지칭하는 용어임, 수단 정부는 이들에게 잠재적으로 무기와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공식적으로는 이를 부인하고 있음.



- 북수단의 바시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의해 다르푸르 내전과 관련하여 전쟁 범죄 등 6가지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으며 수단 제2차 내전의 주범으로도 지목되고 있음.

II. 남수단 독립의 정치, 경제적 영향

1. 정치적 영향

□ 북수단은 예상되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이 과제

- 1956년에 출범한 수단공화국은 민주주의와 독재정치가 반복되는 가운데 많은 쿠데타를 겪었음.
- 1989년에는 바시르가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였고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이슬람교를 국가 이념으로 채택하자 남부 반정부조직인 수단인민해방군이 봉기하며 내전이 본격화됨. 바시르가 남부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채 1993년 10월 대통령에 취임하였으나 국민 전체의 지지를 받지 못하여 내전이 지속됨.
- 남수단 독립 후에도 바시르 대통령은 집권당(Natioal Congress Party: NCP)을 주도하면서 종전과 같이 정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국제적 압력에 굴복하여 남수단의 분리 독립을 허용함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긴축정책의 여파를 여하히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임.
- 아울러 현재 분쟁 상태에 있는 다르푸르(Darfur), 아비에이(Abyei), 남코르도판(South Kordofan), 블루 나일(Blue Nile) 등 지역들도 남수단을 본보기로 하여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NCP 내의 반대 세력과 군부의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
- 남수단 독립 이후 바시르 대통령은 제2의 건국("second republic")을 주창하며 새로운 정부와 헌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아랍-이슬람 공화국의 성격을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남수단은 각종 현안을 조기 타결할 정치력의 존재 여부가 관건

- 독립 후의 초대 대통령은 종전 수단 부통령이자 남수단 자치정부 수반인 살바 키이르(Salva Kiir Mayardit)임. 키이르 대통령은 수단인민해방운동(SPLM) 창설자로서 22년간 내전을 주도하였으며 2005년 존 가랑 당시 수상이 의문의 헬기 사고로 우간다에서 사망한 이후 남부 자치정부의 권력을 승계하였음.
- 수단인민해방전선(Sudan People's Liberation Movement: SPLM)이 거의 전권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나, SPLM을 제외한 타 군부와의 불협화음, 인종 간의 마찰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원유수입 배분, 국경 구획 등 제반 현안을 둘러싼 북수단과의 협상이 조기에 타결되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나, 여하히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이를 가능한 한 빨리 타결하여 국익을 극대화하느냐가 향후 키이르 행정부의 정치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임. 또한 이는 2년 후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서 권력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2. 경제적 영향

□ 북수단은 원유 관련 수입(收入)의 감소분 보전에 총력

- 남수단의 분리 독립으로 주요 수입원이었던 석유 관련 수입이 약 75% 감소함에 따라 잔여 유전에서 원유 증산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남수단에 원유 파이프라인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임
- 2005년 체결된 포괄적 평화협정(Comprehensive Peace Agreement: CPA)에 따르면 원유 수익은 북수단과 남수단이 50:50으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으나 북수단은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추가부담금을 징수하고자 남수단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추가부담금은 연간 남수단 원유수출액의 약 18%인 18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아울러 원유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구조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금광 개발을 확대하고, 농산물과 공산품을 중심으로 남수단과의 교역을 확대할 계획임



- 정부는 남수단 독립에 따른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개년 재정긴축계획을 발표, 시행하고 있음
- IMF의 권고에 따라 이미 연료와 설탕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였으며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세입을 증대시킬 계획이나, 유전이 추가로 발굴되지 않는 한 재정적자의 확대는 사실상 불가피할 전망이다.
- 북수단은 남수단의 분리독립을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국제 사회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어 걸프만 아랍국, 중국, 인도 등으로부터 추가적 자금 유입을 기대하고 있음
- 북수단은 경제성장률이 2010년에 4.4%를 기록하였으나 2011년에는 남수단 독립의 영향으로 석유수입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유가에 힘입어 하락 폭이 완화되어 -2.7%로 예상됨. 그러나 2012년에는 산유량 감소의 영향이 본격화되어 경제성장률이 -9.4%로 대폭 하락할 전망이다.
- 산유량은 2010년 475천 배럴/일에서 2011년 295천 배럴/일, 2012년 130천 배럴/일(정부 목표는 195천 배럴/일)로 급속히 감소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북수단의 금융부문은 발전 수준이 낮는데다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어 세계적 금융경색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않았으나, 2009년 말 현재 무수익여신 비율이 약 20%에 달하는 등 내부적 문제점을 안고 있음

<표 1> 북수단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억 달러, %

| | 2009 | 2010 | 2011 ^f | 2012 ^f |
|------------|------|------|-------------------|-------------------|
| 경제성장률 | 4.0 | 4.4 | -2.7 | -9.4 |
| 소비자물가상승률 | 11.2 | 13.0 | 15.8 | 12.5 |
| 재정수지 / GDP | -2.6 | -3.0 | -3.9 | -3.9 |
| 경상수지 / GDP | -7.7 | -5.8 | -8.6 | -11.5 |
| (수출액) | 85 | 114 | 77 | 33 |
| (수입액) | 85 | 88 | 84 | 64 |

자료: EIU



□ 남수단은 석유일변도의 경제구조 개선, 외국인투자 유치에 주력 예정

- 석유수입이 GDP의 약 70%, 재정수입의 약 90%를 차지할 정도로 석유일변도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오랜 내전에 따른 각종 폐해 즉 극히 부족한 인프라, 저투자, 높은 문맹률 등 해결하여야 할 경제적 과제가 산적해 있음
- 정부는 주변국을 포함한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임.
 - 케냐, 우간다, 에티오피아 등 기진출국들은 투자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보이며, 신생국에 대한 초기 진출로 시장의 선점을 기대하는 신규 외국인투자도 기대됨.
- 재정지출 규모는 최근의 국제 고유가에 힘입어 2011/12년에 약 61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안군, 군대 등에 대한 임금과 인프라 개발사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임
- 북수단과의 국경 지역에서 심각한 긴장상태가 발생하지 않고 원유 수송과 관련하여 북수단의 Red Sea pipeline에 대한 사용료 지급 문제가 원만히 합의된다면, 경제성장률은 2012년에 5.8%(정부 목표 6.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산유량이 2011년 177천 배럴/일에서 2012년에 368배럴/일로 배증하고 원유 수출액도 2011년 58억 달러에서 2012년에 108억 달러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표 2> 남수단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억 달러, %

| | 2011 ^f | 2012 ^f |
|---------------------|-------------------|-------------------|
| 경제성장률 ^{주)} | - | 5.8 |
| 재정수지 / GDP | 3.6 | 4.8 |
| 경상수지 / GDP | 6.1 | 5.9 |
| (수출액) | 58 | 109 |
| (수입액) | 16 | 40 |

주 : 남수단 통계청은 GDP 규모를 130억 달러로 추정, 발표하였음
자료: EIU



III. 남수단의 주요 과제

□ 국경 구획

- 남수단은 국토 면적이 644천 km²(남한의 6.5배)이고 국경선이 2,100km(휴전선의 8배가 넘는 수준)에 달함. 특히 북수단의 바시르 대통령은 현재 분쟁 상태인 다르푸르, 아비에이(Abyei), 남(南)코르도판(South Kordofan), 블루 나일(Blue Nile) 등에서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획득하려 하고 있어 국경 구획과 관련하여 합의에 도달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 군사충돌이 극심한 남코르도판 지역에서는 정전에 합의하는데 실패하고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주재로 비무장지대를 창설하는 협정이 체결되었으나, 바시르 대통령은 반군을 축출할 때까지 군사작전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고수하고 있음
- 북수단군은 풍부한 원유와 목초지를 보유한 아비에이를 5월에 무력으로 점령하였음

□ 석유수입의 배분

- 남북으로 분리되기 이전에 수단은 원유 매장량이 67억 배럴로 아프리카 5위⁴⁾이었는데 이 중 75%가 남수단에 부존되어 있는 반면, 정유시설 및 원유 수출을 위한 파이프라인, 항구는 북수단에 밀집되어 있음
- 2005년의 평화협정 이후 남북 수단은 석유수입을 50:50으로 배분하여 왔으나, 내륙국인 남수단이 독립 이후에 북수단을 대체할 원유 수출항을 단시일 내에 타국에서 물색하기 어려워 석유수입 배분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음
- 노르웨이가 향후 5~7년에 걸쳐 북수단에 대한 수입배분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한바 있으나, 남수단은 주권국이 자원을 타국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반대하고 있음
- 남수단은 3년간 원유를 25%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대신 파이프라인 이용수수료와 기타 세금을 북수단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총액은 20억 달러 미만 예상) 제시하고, 현재 배분율을 6년간 유지하고 관세를 부과하지는 북수단의 제안은 현재 지급액 이상을 요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4) 1위 리비아(443억 배럴), 2위 나이지리아(372억 배럴), 3위 앙골라(135억 배럴), 4위 알제리(122억 배럴)임



□ 외국 자본의 국내경제 장악 완화

- 경제의 근간인 석유산업은 자본과 기술의 부족으로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 외국의 자본이 국내 자본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원유를 탐사, 개발하고 있음. 2010년 기준 산유량의 90%를 중국의 CNPC, 인도의 ONGC, 말레이시아의 PNBPA가 차지하였음
- 헤그리그(Heglig) 유전은 중국 CNPC(40%), 말레이시아 Petroas(30%), 인도네시아 ONGC Videsh(25%), 수단의 Sudapet(5%)가 합작회사(Greater Nile Petroleum Operating Company)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멜루트(Melut) 유전의 경우에도 중국, 쿠웨이트 등이 개발에 참여하여 있음
- 특히 중국은 1995년부터 원유 개발에 참여하여 6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일 40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하고 있음. 2011년 6월에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수배를 받고 있는 바시르 대통령을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 초청하여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자원 획득에 적극적임.
- 중국은 유전 개발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수단 경제를 장악하고 있음. 남수단의 원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남수단-우간다-케냐 뭍바사 항을 연결하는 2,000km의 송유관을 차관으로 건설해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며 이집트가 극심하게 반대하였던 나일강 상류의 발전 및 담수용 댐도 중국업체가 완공하였음.
- 외국인들은 상당 규모의 토지와 주요 상업시설도 장악하고 있음. 2007~10년에 26,300km²의 토지가 개인에게 매각되었고 주요 상업시설은 대부분 인접국의 자본가들이 운영하고 있음

□ 내부 분열과 부패의 방지

- 아프리카 국가들이 서구의 식민지 상태에서 독립한 이후에 국내에서 세력이 강한 부족이 권력과 이권을 독점하고 부패가 만연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함
- 에리트리아의 경우 30년의 분리독립 투쟁 끝에 1993년 주민투표를 통해 이디오피아로부터 독립하였으나 부패한 독재국가로 전락한 사례가 있음



- 독립 후에 개발원조 등 국제사회의 자금 지원이 기대되는 반면 만연한 부패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음

□ 빈곤 퇴치와 사회 인프라 구축

- 남수단은 경제의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국민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농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임. 에티오피아 등 인접국에 비해 강수량이 풍부하고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할 계획이며 이는 원유 자원을 둘러싸고 전쟁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가장 큰 걸림돌은 오랜 내전으로 사회 전반적 인프라가 거의 대부분 파괴되었다는 점임. 상하수도가 없고 포장도로는 48km에 불과하며 남수단의 유일한 발전소는 디젤엔진으로 가동되고 있는 실정임.
- UN에 따르면 수단은 인간개발지수에서 169개국 중 154위임. 남수단은 더 비참하여 인구의 90%가 1일 소득이 50센트 미만인데다 80%가 움막에 거주하고 있으며 문맹률이 80%를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작성 : 해외경제연구소 국별조사실
선임조사역 노승재 (3779-5726)
sjnoh@koreaexim.go.kr